

열왕기상 9. ‘솔로몬’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‘솔로몬’의 업적들 (왕상 9:1-28)

들어가기

열왕기상 9 장은 ‘솔로몬’이 예루살렘 성전과 ‘솔로몬’ 왕궁의 건축을 다 마무리하자 하나님께서 ‘솔로몬’에게 다시 나타나 이전에 말씀하셨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 일과 그 동안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건축에 큰 도움을 주었던 두로 왕 ‘히람’에게 ‘솔로몬’이 감사를 표현한 일, 그 외 ‘솔로몬’의 여러 건축사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

1. 하나님께서 ‘솔로몬’에게 또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. (1-9 절)

1) 하나님은 이전에 ‘기브온’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‘솔로몬’에게 나타나셨습니다. (1-2 절)

- 하나님은 ‘솔로몬’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, 그날 밤에 ‘솔로몬’의 꿈을 통해 나타나 주셨음. (왕상 3:5, 15) => **‘솔로몬’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!**
-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‘솔로몬’ 왕궁의 건축이 다 마무리된 지금! 그때처럼! 다시 ‘솔로몬’에게 나타나셨다는 것! => **‘솔로몬’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계시!**

2) 그럼 ‘솔로몬’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? (3-9 절)

①.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,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,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실 것이라 약속해 주심! (3 절)

✓ 특별히 3 절 첫 부분 주목!

‘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, **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**’

- 곧 ‘솔로몬’은 성전이 완공된 날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길 늘 기도했음을 추측할 수 있음!
- 우리도 올 한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 늘 임하여 주시길 기도하자!

②. ‘솔로몬’이 만일 ‘다윗’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,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, ‘다윗’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! (4-5 절)

✓ 특별히 4 절 첫 부분 주목!

‘…,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**온전히** 하고, **바르게** 하여, 내 앞에서 행하며 …’

- ‘온전히’는 ‘툼’이란 말로 ‘완전 무결함’, ‘성실함’이란 의미
- ‘바르게’는 ‘요쉐르’란 말로 ‘정직함’, ‘길을 곧게 함’이란 의미
- 그럼 과연 ‘다윗’의 인생을 돌아볼 때, 그가 온전하고 바르게 행했다고 할 수 있을까?
- 여기서 다시금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되자!

③.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온전히 지키지 않고, 다른 신을 섬기면,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버리실 것이고, 도리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 경고하심! (6-9 절)

✓ 특별히 7 절 마지막 부분을 주목!

‘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,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**속담거리와 이야기 거리**가 될 것이며’

- ‘속담거리’ = 원어 '마살' -> ‘격언 + 교훈’
 - 곧 이스라엘의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하나의 본보기 또는 객관적 교훈이 될 것!
- ‘이야기 거리’ = 원어 '쉐니나' -> '찌르다' '날카롭게 하다'란 뜻의 '쇠난'에서 나온 말!
 - 곧 그 의미는 ‘신랄하고 날카롭게 찌르고 조롱할 말’이란 뜻
-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며 선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, 그렇지 못하고 부정적인 본보기가 되고, 세상으로부터 신랄한 비판과 조롱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임!

❖ 그럼 왜? 하나님은 ‘솔로몬’에게 다시 나타나 이런 계시의 말씀을 전해 주셨을까?
=> 10 절 주목!: ‘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와 성전과 왕궁을 **이십 년**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’

- 곧 두 번째 계시가 임한 때는 성전 건축(7년)과 왕궁 건축(13년)이 마무리 된 때!
- 시기적으로는 ‘솔로몬’이 즉위한지 대략 24년이 되던 무렵으로, 안으로는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이 마무리되고, 주요 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, 밖으로는 외교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‘솔로몬’ 왕궁이 강대국으로 발전하던 때였음!
- 따라서 자연스럽게 ‘솔로몬’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교만해지고,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, 이방문화의 유혹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생기던 시기였다는 것!
-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‘솔로몬’의 신앙 상태를 재점검해 주시고,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바로 잡아 주시고자 다시금 나타나 주셨다는 것!
- 이는 곧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미리 경고해 주시고,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!

2. ‘솔로몬’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건설에 큰 도움을 준 두로 왕에게 감사했습니다. (10-14 절)

1) ‘솔로몬’이 감사의 뜻으로 두로 왕 ‘히람’에게 제공한 것은 무엇이었나요?

- 갈릴리 땅의 20 성읍을 보상으로 ‘히람’에게 주었음! (11 절)
- 그러나! 두로 왕 ‘히람’ 그 성읍들을 눈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기록함! (12 절)

❖ 참고: ‘솔로몬’은 정말로 갈릴리 20 성읍들을 곧 이스라엘의 영토를 ‘히람’ 왕에게 주었을까?

- 갈릴리 20 성읍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에 위치한 곳!
- 참고로 당시 ‘솔로몬’ 시대의 갈릴리는 오늘날의 갈릴리 지역과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음! (갈릴리 지역의 정확한 경계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확정되었음.)
- 아무튼 당시 그 지역은 역사상 끊임없이 여러 민족들이 이주해 들어왔다 나가는 이스라엘 최북방의 국경지대였고, 두로와 국경을 이루고 있었음.

- ✓ 그런데 ‘솔로몬’이 이 지역을 ‘히람’에게 주었다? -> 이는 국경선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!
 ->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포기한 꼴이 됨!!
 -> 따라서 학자들은 ‘솔로몬’이 국경선의 변화를 감수하면서 이 지역을 ‘히람’에게 완전히 내어주었다기 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그 땅을 양도해 주었다고 해석함!

❖ 그로 인해 두로 왕 ‘히람’은 이것을 좋게 보지 않았고 불평했을 것!

- 13 절을 주목!

‘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**가불** 땅이라 하였더니’

- ‘가불’ = ‘별로 좋은 점이 없는’, ‘무가치한’ 이란 뜻 + ‘경계’, ‘국경지역’이란 뜻으로도 사용!

- 그런데 역대하 8 장 2 절을 보면, ‘히람’은 이 성읍들을 ‘솔로몬’에게 다시 반환해 줌!

- 따라서 이 성읍들은 일종의 ‘담보물’로 ‘히람’에게 주어졌을 것이란 해석이 힘을 얻음!.

2) 특별히 14 절 말씀을 주목! -> ‘히람이 금 일백이십 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’

❖ 참고: 금 일백 이십 달란트 (성경총론: 성경의 도량형과 화폐)

- 고대 이스라엘의 화폐의 가치를 보면, 당시 금 1 세겔 = 대략 은 15 세겔의 가치

- 당시 은 30 세겔 = 건장한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을 값!

- 금 1 달란트 = 금 3,000 세겔(34.37kg) = 은 45,000 세겔의 가치!

❖ 그럼 ‘히람’은 왜 ‘솔로몬’에게 이렇게 많은 금을 보냈을까?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?

- 그 이유는 분명치 않다!!

- 또한 10-13 절의 분위기를 볼 때, 당시 ‘솔로몬’과 ‘히람’의 관계가 좀 모호한 상태였음!

✓ 이 금에 대한 3 가지 견해들

①. 오랜 건축으로 탕진한 국고를 충당키 위해 ‘솔로몬’이 갈릴리 성읍들을 담보로 ‘히람’에게 빌려온 금이라는 견해(Sanda).

②. 14 절의 금은 11 절의 금과 동일한 것!

- 곧 앞에서 갈릴리 성읍들을 준 것은 바로 이 금값을 지불한 것이라는 견해(Benzinger)

③. 아예 본 절을 수정하여 금을 보낸 사람은 ‘히람’이 아니라 ‘솔로몬’이라는 견해(Gratz)

- 곧 이 금은 ‘솔로몬’이 갈릴리 성읍을 되찾아 오기 위해 지불한 값이라는 주장.

❖ 학자들의 공통의견은 당시 ‘솔로몬’의 재정상태는 오랜 건축사업으로 인해 매우 좋지 않음!

3. ‘솔로몬’의 나머지 업적들 (15-28 절)

1) 예루살렘 성을 비롯한 국경 지역의 건축 사업들 (15-14 절)

①. 예루살렘 성의 재건축

- 다윗 -> 예루살렘 성을 요새로 선정하여 다윗 성을 짓고 성벽을 건축함. (삼하 5:6-9)

- 솔로몬 -> 다윗이 세운 성벽을 더 견고히 하고, 예루살렘 성을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킴!

- ②. ‘하솔’과 ‘므깃도’와 ‘게셀’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국고성과 병거성, 마병의 성들을 건축함.
 - 이는 곧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견고하게 하여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겠다는 의도!

❖ 참고: ‘므깃도’와 ‘게셀’

①. ‘므깃도’

- 이곳은 팔레스틴 내륙에서 베니게에 이르는 길과 애굽에서 수리아, 메소포타미아로 이르는 교통의 교차점이자 군사적 요충지이고 충돌지역임! (삿 5:19, 삼상 31:1, etc.)
- 따라서 역사상 이곳에서는 항상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던 곳!
- 참고로 계시록은 이곳 ‘므깃도’를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망시키실 최후의 전투장소, 곧 아마겟돈 전쟁의 무대로 묘사함! (계 16:16)

②. ‘게셀’

- 이곳은 예루살렘과 옘바中间的 팔레스틴 평지에 있는 성읍
-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으나 애굽의 바로가 빼앗아 솔로몬에게 줌! (이는 솔로몬의 아내인 자기 딸을 위한 일종의 지참금으로 해석 (Hamilton))
- 솔로몬은 이곳을 요새화 시켰고,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주요 군사 요충지로 사용됨. (오늘 = '텔 엘 예셀'(Tell el-Jezer)로 불림)

2) 특별히 20-21 절 주목!

‘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,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’

- ‘솔로몬’이 진행한 건축 공사에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노동력이 요구됨!
- 그런데 솔로몬은 그 노동력을 옛 가나안 후손들을 노예로 삼아 건축 공사를 진행시킴!
 - > 그 수는 최소 15 만명이 넘었을 것! (5:15 절)
 - > 강제 노역? vs 임금 지불? => 의견이 대치됨.
-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노예로 삼지 않았고, 저들을 지휘하는 사람들로 사용함!
 - > 그러나 점점 더 이들의 업무도 과중 되기 시작함!!

3) ‘솔로몬’은 ‘바로’의 딸을 위하여 따로 궁전을 건축한 뒤, 새 궁전으로 거처를 옮기게 함.

- 이때까지 ‘바로’의 딸은 ‘다윗’ 궁에 거하였음!
 - > 그럼 솔로몬은 왜 굳이 ‘바로’의 딸을 ‘다윗’ 궁에 두지 않고 새 궁전을 지어 옮겼을까?
- > 그 이유는 역대하 8 장 11 절을 통해 추측.
 - 곧 ‘다윗’이 거하던 궁은 원래 법궤가 머물렀던 거룩한 곳이었고, 예루살렘 성전과도 가까운 곳에 있었기에 이방 여인인 ‘바로’의 딸이 머무르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판단!

4) ‘솔로몬’은 하나님을 위해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음.

-> 해마다 세 번이란 ‘솔로몬’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잘 지켰음을 의미함.

❖ 참고: 이스라엘의 3대 절기

- ①. '유월절' (무교절) :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봄 축제
 - ②. '칠칠절' (맥추절) : 처음 보리 베 때부터 밀 수확을 마친 7주가 끝난 날에 드리는 감사제
 - ③. '장막절' (초막절) : 가을 축제로 광야에서 유랑하던 40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.
- > 곧 '솔로몬'은 율법에 따라서 이 모든 절기들을 나름 온전히 드리고자 노력했다는 것!

- 5) '솔로몬'은 에돔 땅 홍해 물가의 '엘롯' 근처 '에시온게벨'에서 배를 건조하였음.
- '엘롯'과 '에시온게벨'은 홍해의 아카바 만 최북단에 위치한 2개의 주요 항구도시
 - > 솔로몬은 이곳에 항구를 건설하여 배를 만들며 해상무역의 기지로 삼음.
 - 두로 왕 '히람'은 '솔로몬'을 위해 선박건조를 위한 기술자와 사공들을 파견해 줌!
 - 곧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인 두로의 왕 '히람'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'솔로몬'을 돕게 하시며,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음!!
- 6) 마지막으로 28 절을 주목! : 솔로몬의 해상무역업을 추측!
- '솔로몬'의 일꾼들은 배를 타고 '오빌'로 가서 무역을 통해 수많은 금을 벌어들임!
 - > 가나안 땅에서만 머물지 않고 세계로 나아갔음!

❖ 참고: 그럼 '오빌'은 어디일까?

-> 크게 다섯 가지 주장.

- (1) 아라비아의 남서부 해안, (2) 아라비아의 동남부 해안 (3) 아프리카의 동북부 해안
- (4) 소아시아 해안, (5) 인도 봄베이 해안 근처

- 이 중 마지막 '인도 봄베이 해안 근처'를 가장 타당성 있게 생각함.
- 그 이유는 당시 세계의 수많은 무역 품목들이 항로를 통해 이곳으로 모였기 때문!
-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금 생산지로 유명한 아프리카 동북부나 아라비아 남서부 해안을 '오빌'로 추측하기도 함.

4.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결심한 내용이 있다면?

5. 중보기도 나눔